

#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 본격화

전남도, 여수·화순·영암·장성 선정  
내년부터 4~5년간 1220억원 투입  
지역 미래성장 핵심동력사업 육성  
한국난 산업화단지·원더랜드 조성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화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여수시와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4개 시군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여수시의 ‘여수로 섬-잇(Sum-it) 트레일’, 화순군의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영암군의 ‘전

남 대표 K-컬처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 장성군의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오는 2025년부터 4~5년간 총 1220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여수시와 화순군은 2025년부터 착수, 영암군과 장성군 사업은 2026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중앙 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와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둔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로, 60~70%가 도비로 지원되며 300억원 초

과분은 각 시군서 부담한다.

선정된 4개 사업은 17개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해 관광·농업·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차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로 9개 사업을 선정한 후 2차 발표, 현장평가를 통해 지역 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사업의 적절성과 사전행정절차, 균형발전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

여수시의 ‘여수로 섬-잇(Sum-it) 트레일’ 사업은 여수 만흥동 일대에 바다레일바이크, 마래아트터널(실감형 미디어아트), 마래아일랜드(스카이워크 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수를 대표하는 해양경관 명소화를 통해 여수관광 매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의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 춘란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양면 일원에 난초 미래산업육성센터, 난 갤러리, 난 테라리움 카페, 난 유통복합센터, 난 연구관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수입 난 시장 대체,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암군의 ‘전남 대표 K-컬처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는 한(韓) 문화의 대표지역인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한옥 등 전통문화 전문교육공간, 수제맥주 팝업스토어, 구림 스테이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 영암의 멋·맛·흥을 즐기는 남도역사문화 대표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의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장성호 관광지에 숙박 공간, 어린이 테

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특산물판매장 등 관광·문화·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장성호 관광지 리뉴얼을 통해 최근 관광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의 강점인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농업 분야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선정했다.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해 획기적 지역 균형발전을 일구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쉽게 미선정된 사업 중 이차전지, 우주산업 등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건의,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 광주시-미국 버지니아주, 푸드테크 협력 모색

농업·식품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

광주시와 미국 버지니아주가 푸드테크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강기정 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장관 등과 만나 ‘농업 및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셉 구스리(Joseph Guthrie) 버지니아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VDAC)S) 청장, 로버트 N 콜리 3세(Robert N. Corley III) 버지니아주립대 농과대학장, 이계한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김두은 전남대학교 푸드테크학과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전남대가 2023년 푸드테크학과를 개설하고 올해부터 버지니아주립대학교와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로 교류를 확장, 농식품 및 푸드테크 분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업·식품·푸드테크 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지역 수출입 상호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자원 및 연구 교류 △지속할 수

있는 농업 개발 모델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이 주요 논의됐다.

조셉 구스리 버지니아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 청장은 “이번 만남은 버지니아주와 광주시의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버지니아의 가장 큰 산업은 농업이고, 생명과학 및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셉 청장은 이어 “특히 버지니아의 대학교육이 버지니아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며 “버지니아주립대와 전남대 공동연구는 광주와 버지니아의 산업 발전에 크게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는 95개 카운티 38개의 독립도시로 이뤄진 북미 최대 공생산지 농업 및 바이오산업에 강점이 있는 지역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비옥한 땅 덕분에 농업과 음식문화가 발달한 호남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도 있다”며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협력을 통해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쌀수입 중단과 쌀값 하락 대책 마련 등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공공비축미 800kg 50포대를 쌀고 있다. 나건호 기자

## 광주시, ‘인공지능 원격구강검진실’ 운영

시청 1층...치과전문의 원격 진단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돕는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구강검진이 필요한 시민, 방문객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강 빅데이터 기반 AI 원격구강검진 검진실’을 시청 1층에 마련, 19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실증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AI 헬스케어 기업인 ㈜아이클로와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아이클로는 특허받은 구강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이용, 구강질환 예측으로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덴탈 헬스케어 솔루션 선도기업이다. ㈜아

이클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거브테크(GovTech) 혁신 페스티벌’에서 ‘AI 원격구강검진 솔루션’으로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AI 원격구강검진 절차는 간단하다. 시청사 1층에 있는 원격구강검진실을 방문해 구강사진을 촬영하면, 촬영한 사진을 AI이 분석해 치과 전문의에게 전달한다. 치과 전문의는 원격으로 구강질환 유무 등을 최종 진단한다.

이후 구강질환 여부를 포함한 진단 결과가 고객에게 전송돼 시민들은 치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장에는 치위생사 2명이 상주해 필요한 설명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2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75.4%이지만 구강검진 수검률이 26.4%에 불과해 이번 AI 원격구강검진 실증이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도시문제 해결형 AI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해 올해까지 총 8개 도시문제 해결과제를 위한 AI 솔루션 실증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렉스소프트주의 ‘건강검진 중심 헬스케어 정보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엔유비즈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기반 가로수맵 개발(광주 Street Tree 맵)’, ㈜무한정보기술의 ‘AI 도로 포장상태 평가관리 솔루션’, ㈜카라멜라의 ‘AI 멀티플레이 인터랙티브 디지털 룸’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비스 이용자도 상시 모집

광주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4시간지원) 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주간 활동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같은 해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27일까지 신청서류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4시간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상시 신청받는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11월 친환경농산물에 ‘무안 유기농 양배추’

면역 강화·위 건강 효능

전남도가 신선한 해풍과 온화한 기후의 무안에서 자란 유기농 양배추를 11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먹던 채소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서양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다. 특히 비타민C와 비타민U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위 건강

에 좋다. 비타민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소화기 질환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무안 현경면 김대도(60) 농가는 2.3ha(약 7000평) 노지에서 유기농 양배추를 재배,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올해 유기농 양배추 생산 예상량은 대략 150톤으로

2025년 2월까지 수확할 예정이다.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토양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양배추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한 유기농산물은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다.

한편 전남지역 유기농 양배추 재배 면적은 약 23ha로 전국(122ha)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